

보도 일시	2022. 1. 26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1. 26.(수) 08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	책임자	과 장	민혜영 (044-200-4363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우 (044-200-4367)

친환경 전기차 시장, 기업결합(M&A) 활발히 전개

- 특히, 전기차 핵심부품인 '리튬이온전지' 공급망 내 인수합병 증가 -

1

전기차 시장 기업결합(M&A) 동향

- ☐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(이하 'M&A')를 신속히 심사·승인해왔다.
- ☐ 세계적으로 친환경·저탄소 정책의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,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 체제로 사업을 전환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.
 -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차 시장에서는 원재료 공급시장(Up Stream)에서부터 부품 및 완성차 제조시장(Down Stream)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 과정에서 M&A가 활발히 전개되었다.
 - 특히,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와 관련한 M&A가 다수를 차지하며, 버스·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위한 구조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.
- ①전기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(리튬이온 전지)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협작을 추진한 사례

- ②배터리 공급업체가 유럽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소재 생산업체를 인수한 사례
- ③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(양극재, 음극재)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해 주식취득, 합작 등을 추진한 사례
- ④그 외에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·일본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협력한 사례

<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생산단계별 M&A 동향 >



2

주요 M&A 심사 개요 및 내용

① 현대차그룹과 (주)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건('21.7.19. 승인)

- 현대차그룹(현대모비스,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)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50%를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으로, 본 결합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를 생산·판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 -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의 수직결합으로 공정위는 당해 시장에 다수의 유력 경쟁자*가 존재하고,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 전기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우려가 적다고 보아 승인하였다.
- * 세계 승용 전기차 시장: Tesla(21.8%), GM(10.8%), VW(10.5%), Renault-Nissan(9.1%), BYD(6.5%), 현대차그룹(6.3%), SAIC(3.4%), PSA(3.3%) 등이 경쟁하고 있음

② (주)엘지화학의 Toray Hungary 주식취득 건('22.1.3. 승인)

- 엘지화학*이 Toray Hungary 주식의 50%를 취득하는 건으로, 본 결합은 유럽 내에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- * LG화학(분리막 제조)·LG에너지솔루션(리튬이온전지 제조), Toray(분리막 제조)
-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제조사와 그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사 간의 수직·수평결합으로 두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며,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보아 승인하였다.
- *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: LGES(25.2%), Panasonic(20.9%), CATL(20.9%), BYD(7.2%), 삼성SDI(5.8%), SK이노베이션(5.8%) 등이 경쟁
- ** 세계 분리막 시장: 상해에너지(21.8%), Asahi(12.4%), Toray(10.8%), SKIET(8.3%), AET(6.5%), LG화학(5.4%) 등이 경쟁

③ 리튬이온전지 양극재 · 음극재 제조사와 원재료 공급사 간 M&A

-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탄산리튬, 전구체, 니들코크스 등을 원재료로 한다.
- 독일, 벨기에, 일본, 중국 등 양 · 음극재 제조업체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고 기술적 제휴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도모하고자 원재료 공급업체들과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다.
- 리튬이온전지 소재 제조사와 원재료 공급사 간 수직결합 등에 대해, 결합 후에도 관련 시장의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보아 승인하였다.

기업결합 승인 사례

- **BASF SE**(독일, 양극재 제조)의 **Human Shanshan Energy Technology**(중국, 탄산리튬 공급) 주식취득 건('21.6.28. 승인)
- **Umicore그룹**(벨기에, 양극재 제조)의 **Freeport McMoran그룹**(미국, 전구체 공급) 주식취득 건('19.8.20. 승인)
- **JFE그룹**(일본, 음극재 제조)과 **BaoWu그룹**(중국, 니들코크스 공급사) 등의 합작회사 설립 건('19.8.12. 승인)
- **Zhejiang Huayou Cobalt**(중국, 전구체 공급)의 **Tianjin B&M Science and Technology**(중국, 양극재 제조) 주식취득 건('19.8.8. 승인)

④ BYD Auto Industry와 Hino Motors의 합작회사 설립 건('21.10.21. 승인)

- BYD(중국의 전기 상용차 제조업체)와 Hino(일본 토요타 계열의 상용차 전문 제조업체)가 전기 상용차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
- 본 건 기업결합은 전기차 및 상용차 분야에서 BYD와 Hino가 지닌 기술과 비법(노하우) 등을 공유하여 급증하는 전기 상용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,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어 승인하였다.

-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·그린뉴딜 등 친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시장 역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·승인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,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.